

'귀멸의 칼날'이 끌고 '국보'가 밀었다

## 영화 흥행수입 역대 최고 기록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과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실사 영화 '국보'의 폭발적인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일본 내 영화 흥행 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일본영화제작자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영화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영화와 외화를 합산한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32.6% 증가한 2744억5200만엔(약 2조55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고액이었던 2019년 2611억엔을 넘어 연맹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흥행 일등 공신은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이었다.

이 작품은 무려 391억4000만엔의 수입을 올리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귀멸의 칼날' 시리즈는 전 세계 흥행 수입 1000억엔을 돌파하며 일



방한한 일본 천만영화 '국보' 이상일 감독

본 영화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위는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하고 요시자와 료가 주연한

'국보'가 차지했다.

가부기의 세계를 다룬 이 영화는

195억5000만엔의 수입을 기록했다.

가 히트작이 4편에 달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일본 영화가 2075억 6900만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을 주도했다.

반면 외화 수입은 668억8300만엔에 머물렀다. 외화 중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이 52억 8000만엔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 수는 전년보다 30.7% 늘어난 1억 8875만6000명으로 역대 2위였다. 개봉 편수는 1305편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시마타니 요시시게 일본영화제작자연맹 회장은 NHK에 "지난해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대가 균형 있게 극장을 찾았다"며 "올해 개봉작들의 흥행 여부가 일본 영화계의 저력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 저작권 통매각... 약 3000억원 수준

브리트니 스피어스.

AFP=연합뉴스

연예매체 TMZ는 거래 규모가 2023년 당시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저작권 매각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비버는 2억달러(현재 약 2911억원)에 카탈로그 권리 넘긴 바 있다.

미국 대중음악계에선 스피어스나 비버처럼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리 를 일괄 매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저작권을 연금처럼 나눠서 받기보다는 한 번에 거액을 챙기는 결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들을 비롯해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포크계의 전설' 밥 딜런, '록의 대부'로 통하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배우 겸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 '라틴팝의 여왕' 샤카라 등이 카탈로그 권리 매각했다. 연합뉴스

###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

## 워싱턴포스트 '넥스트 50'에 선정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 그룹 캣츠아이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뽑은 '포스트 넥스트 - 2026년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50인'에 선정됐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포스트 넥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캣츠아이를 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 차기 주자로 꼽았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와 계팬 레코드가 지난해 선보인 6인조 걸그룹으로, 다니엘라(미국), 리라(미국), 마농(스위스), 메간(미국), 소피아(필리핀), 윤재(한국) 등이 멤버다.

K-팝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한 걸그룹이지만, 한국 출신은 한 명뿐이며 각 멤버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을 "K-팝의 틀을 깨부수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그림미상 후보 기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3개 대륙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K-팝 그룹 포맷에 글로벌 감각을 더했다"며 "캣츠아이의 다양성은 다른 K팝 그룹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 연애'도 하지 않는 대 부분의 K-팝 스타들과 달리 양성애,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성인간 강 등 사생활을 솔직하게 공개한다는 점도 이 그룹의 차별화된 요소

라고 WP는 소개했다.

지난 1일 열린 제48회 그래미어

워즈에서는 최우수 신인상·메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올 초 남미에서 열리는 라파엘루자, 4월에는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등 주요 공연에 연달아 참여한다.

포스트 넥스트는 워싱턴포스트가 정치·기술·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인물들을 모은 명단으로,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연합뉴스

### 연예계 소식

#### I 버스커버스커 원년 멤버 박경구 사망... 장범준 추모



박경구. 박경구 인스타그램

#### | '세계의 주인' 20만 돌파 한국 독립영화 신기록



'세계의 주인' 포스터. 쭈바른손이앤씨 제공

#### | 스트레이 키즈 월드투어 실황 영화 글로벌 정상



스트레이 키즈.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월드투어 실황을 담은 영화 글로벌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개봉한 '스트레이 키즈 : 더 도미네이트 익스피리언스'가 2월 첫 주말 전 세계 61개 지역에서 191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는 1724개 상영관을 통해 해외 560만달러를, 멕시코에서는 약 21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윤가는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2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지난 7일 기준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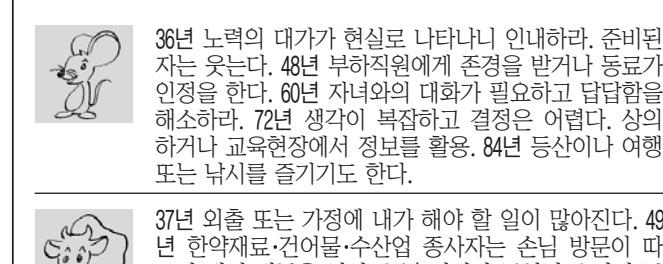
이는 지난해 개봉한 한국 독립·예술 실사 영화 중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세계의 주인'은 반장, 모범생, 학교 인싸인 열여덟 고등학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 운동을 거부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종성 지단(知丹) 작병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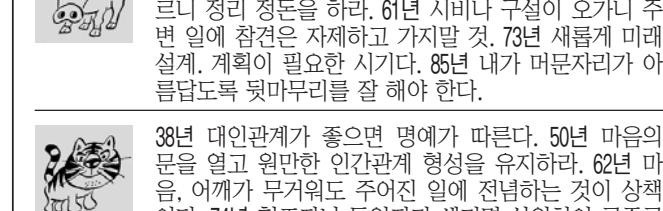
### 오늘의 운세 12일



36년 노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48년 부하직원에게 존경을 받거나 동료가 인정을 한다. 60년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담합협을 해소하라. 72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 84년 등산이나 여행 또는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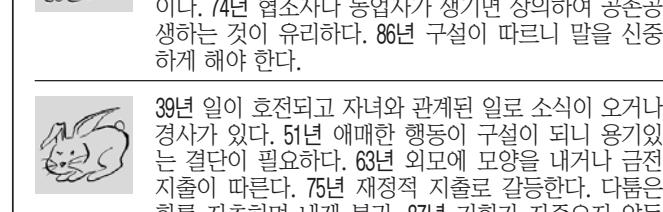
42년 한연이나 지연이 필요하고 단합하게 된다. 54년 기획 또는 통계분야는 일이 분주하고 이의이 따른다. 66년 갈등이 다가온다. 오늘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78년 주변에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는다. 90년 친구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대화의 즐거움이 있다.



37년 출처 또는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49년 한약재료·건어물·수산업 종사자는 손님 방문에 따른 정리 정돈을 하라. 61년 시비나 구설이 오가니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가지 말 것. 73년 새롭게 미래 설계 계획이 필요할 시기다. 85년 내가 마련자리가 아름답도록 뗏목무리를 잘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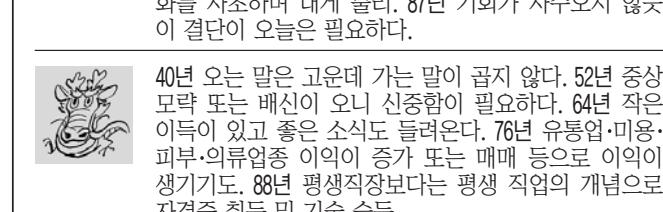
43년 마을 조례이 때문 필요하다. 금한 성격은 불리. 55년 동업 또는 창업에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67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은 일관하고 계약이 증가. 79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 때 조언을 해야 한다. 91년 고수 있다. 조기 귀가. 과음은 피하라. 93년 많은 사람과 친목, 단합을 하게 된다.



38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예가 따른다. 50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62년 마음의 어려움으로 주어진 일을 전념하는 것이 최선이다. 74년 협조자나 동업자와 생기면 상의하여 공동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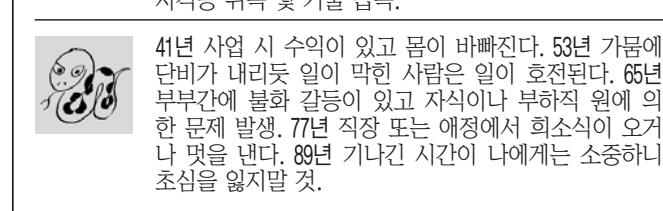
44년 주변과 융화, 단합을 하게 되며 즐거움이 따른다. 56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이 있다. 68년 하고자 하는 일에 결과가 있으나 최선을 다하자. 80년 너그러움이 상대를 편안케 하고 우머나 필요한 날. 92년 불만이 때로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39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51년 애매한 행동이 구설이 되니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63년 외모에 모양을 내거나 금전 자들이 따른다. 75년 재정적 자辱로 갈등한다. 다른들은 자주하며 내게 불리. 87년 기회가 자주오지 않듯이 결단이 오늘은 필요하다.



45년 하던 일에 변화가 오거나 변동을 주고 싶어 한다. 57년 약속 만남이 어뤄지거나 여행갈 일이 생긴다. 69년 과음은 불리하니 적당히. 대중교통 이용. 81년 미혼자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한다. 93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혼란함이 몰려온다.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40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굽지 않다. 52년 중상 모략 또는 배신이 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4년 작은 이들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76년 유통업·미용·피부·의류업종 이익이 증가 또는 매매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88년 평생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및 기술 습득.



41년 사업 시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3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5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자식이나 부하직원에 의한 문제 발생. 77년 직장 또는 애정에서 회소식이 오거나 몇몇 낸다. 89년 기나긴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하나 조심을 잊지 말 것.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